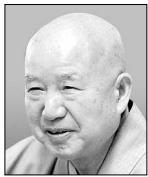


일주문



고승대법회에서 법문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8월 12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51)508-3122



수재민 돌기 산사음악회
양양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은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낙산사 보타락 특설 무대에서 수재민 돌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672-2447-8



충남지역서 생명명화도보순례
생명명화탑발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8월 22일부터 금강산을 시작으로 논산 공주 서산 천안 등 충남지역을 도보순례한다. (063)636-1950



'산사에서 만나는 상담' 개최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택 스님은 8월 12-13일 동학사에서 '제7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행사를 갖는다. (02)737-8803



인도 다람살라서 의료봉사
동국대 김용택 부총장은 '동국참사람 봉사단'과 함께 8월 8-21일 인도 다람살라 일대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6 해외문화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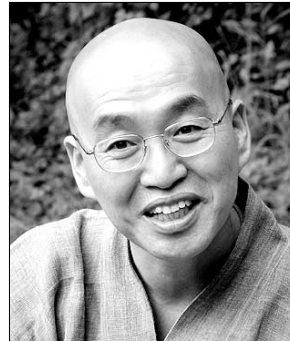


경원 스님 초청 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 오상현 관장은 8월 9일 오후 7시 보현큰법당에서 '불교의 본질'을 주제로 광덕사 주지 경원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이념떠나 인간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북한 수해주민에 구호품 보낸 JTS 이사장 법륜 스님

“북한의 장마 피해는 지난 95년에 버금갈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망 및 실종자가 1만여명, 이재민이 130만~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척 할 수 없었습니다.”



법륜 스님이 보고 받은 북한의 장마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황해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합계 이념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평안남도 양덕군, 신양군, 맹산군, 강원도 금강군 등이 심각하다.

“우리로 수재를 입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깊이 헤아려 수재민을 돕는 일에 국민이나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제이티에스는 8월 3일 라면과 밀가루, 의류 등 모두 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평안남도 양덕군 수재민들에게 보냈다. 또한 8월 5일 중국 단둥에서 그릇 3만개, 수저 5천개, 이불 2천개 등 5천여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신의주로 보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염불만일회, 불국사서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김재일)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주 불국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06년 제9차년도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했다. 불국사 주지 총상 스님 등이 참석한 대회는 아미타불장엄염불 및 48대원, 다보탑 석가탑 탑돌이 행선 염불기도, 육바라밀·육염불 실천다짐 등으로 진행됐다.

성남 불국사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



성남 불국사(주지 효관은)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경내 심검당에서 큰스님 초청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2일 묘허 스님을 시작으로 효관 성철 정관 자광 정목 스님 순으로 진행됐으며 8일 안도 스님을 끝으로 회향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총서 스님 차례제가 열렸다.

큰스님 3대 모신 '큰보살'

해암 스님 30년 시봉 광명화 보살 107세로 입적

前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을 30년간 모셨던 광명화(김봉수·사진) 보살이 7월 25일 107세 나이로 해인사 원당암에서 입적해 28일 영결식이 열렸다.



광명화 보살의 삼보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은 유별한 정도로 유명하다. 100세가 넘었음에도 스님들을 위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한결같았다. 해인사 스님들 중 보살이 만든 법복을 입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공경심이 남달랐다.

영결식에는 해인총림 원로스님과 원당암 대중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직접 추도사로써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1979년부터는 아들, 딸, 손자손녀를 둔 다복한 가정임에도 속가와의 인연도 끊고 원당암에 들어와 스님과 똑같이 정진했다. 안거계례뿐 아니라 율령정진에 참여했으며, 틈만 나면 발일을 하는 등 수행의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광명화 보살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스님들의 승복을 직접 만들고,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공덕을 쌓았다.

이러한 신심은 손녀중 하나를 발심 출가시키기도 했다. 안동의 한 사찰에서 정진하고 있는 지은 스님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이전

한·몽골 불교교류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과 몽골 불교 전선교류와 우호협력에 위해 창립한 사단법인 한·몽골 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는 8월 4일 대구불교회관 2층 사무실을 마련,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053)657-0408

시정유공시민상 수상 관음의 집 이정숙씨

대구 동화사가 대구종합복지회관으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 관리 봉사자 이정숙(사진)씨가 8월1일 대구시로부터 시정유공시민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정유공시민상은 대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시민에게 주는 상이다. 이정숙씨는 10여 년간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관음의 집을 관리하면서 불우노인과 소외계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대구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등 다양한 봉사 및 교화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관음의 집은 자원봉사자 180여명의 도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의 불우노인 150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김군자 할머니 5천만원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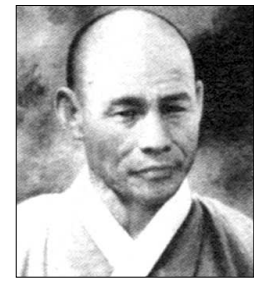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에 '고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김군자 할머니(81·사진)가 지난 6년간 모은 생활비 5000만원을 7월 31일 '아름다운 재단'에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김군자 할머니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 8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모은 것이다.

모은 재산 5천 만을 기탁한 적이 있다. 김군자 할머니는 강원 평창군 출생으로 13세때 부모를 여의고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해방되던 해까지 3년 동안 중국 훈춘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1996년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98년 3월 나눔의 집에 입주했다.



남동우 기자



만해 스님 '8월의 독서인'·심우장 '8월의 문화재' 선정

만해 한용운 스님(왼쪽 사진)이 8월의 독서인으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 (오른쪽)은 이달의 문화재로 뽑혔다. 한국독서학회(회장 박인기·경인교육대 교수)는 "시인이자 3·1운동을 이끈 민족 지도자였던 만해의 삶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는 독서를 통해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

조했다"고 8월의 독서인으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삼장을 집필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태어난 8월에 심우장을 '이달의 서울시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층열식 심야온돌·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찾아오시는 길
김주신장군묘 약1.5km
영천방향
중효주유소 서천교
금선사여래선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경주시내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